

우리의 고인쇄술 펼친 '인쇄문화' 잔치마당

인간문화재 오국진씨 활자주조·한지 제작 시연 ... 고서 및 교과서 특별전도

제3회 '청주 인쇄출판축제가 지난 9월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사지 일원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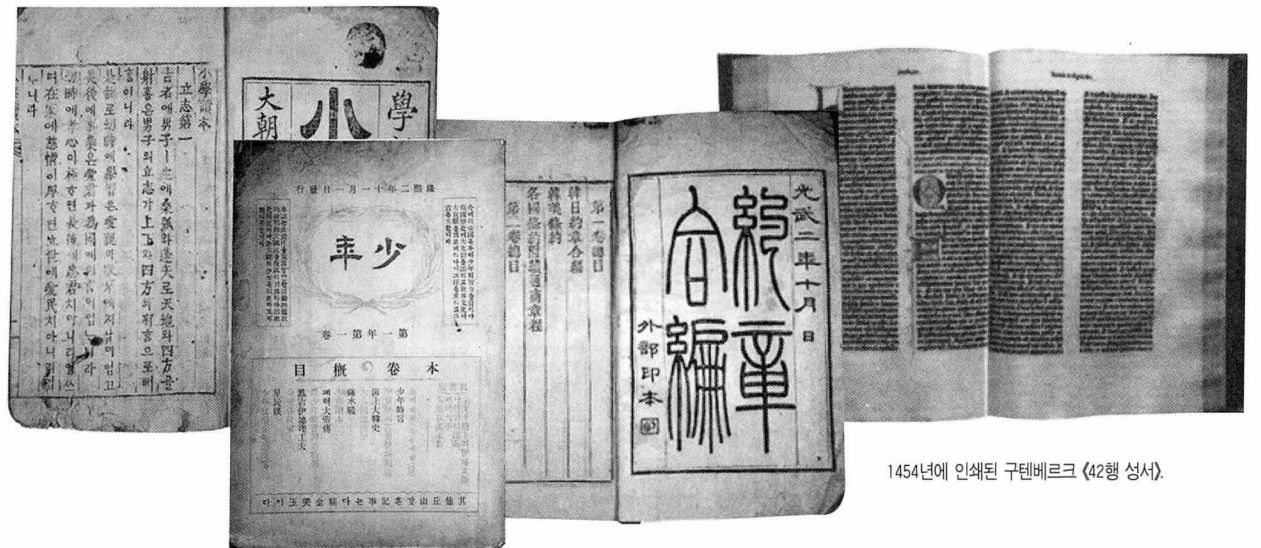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만한 청주시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세계인쇄역사에 대한 이해와 고인쇄문화의 국제적인 비교연구, 기록문화유산인 《직지심경》의 세계적인 공인과 보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축제의 내용은 ▲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 ▲한국 고서 및 교과서 특별전시 ▲전통한지 제조과정 시연 ▲고인쇄과정 시연 ▲한독(韓獨)고인쇄문화 교류 전시 등이다.

고인쇄문화의 메카 흥덕사지

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는 29일 서울 세브란스 빌딩에서 시작된 심포지엄에 이어 10월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금속 활자 발명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17명의 인쇄 전문가들이 참가, 각 나라의 인쇄문화 발달과정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교하고 《직지심경》의 우수성을 재조명했다. 윤병태 교수는 "중국의 판지심 교수가 내세운 중국 최고의 인쇄물이라는 《어시책》은 우리 것"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학술회의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인쇄술의 기원에 대해 논박하는 가운데 10월 1일부터 청주 고인쇄박물관 마당에서는 고인쇄과정과 전통한지 제조과정 시연되었다.

고인쇄과정 시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동림(東林) 오국진(53)씨와 그의 아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씨는 금속 활자를 비롯한 우리의 고인쇄문화 복원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장인이다. 오씨는 그동안 충북 청주시 북문로의 10여평 남짓한 작업장 동림서관에서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하권과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복원해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직지심경》이 별꽃의 씨겨기인 밀랍을 이용한 '밀랍주조법'에



한국 고서 및 개화기 교과서 특별전에 출품된 책들.

1454년에 인쇄된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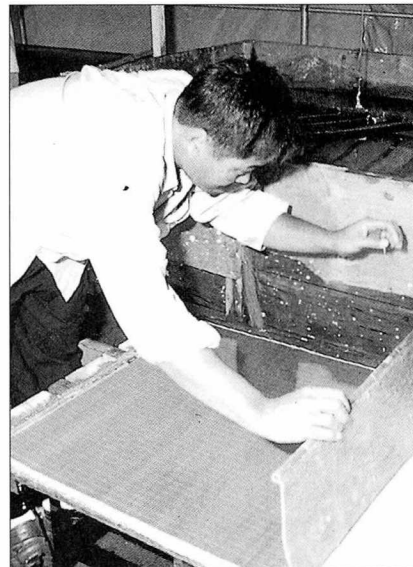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 이번 시연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밀랍주조법은 정제된 밀랍에 글자를 새겨, 쇠물의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석고를 덮어씌운 다음 구워내 녹은 밀랍을 빼낸 뒤 다시 쇠물을 주입해 활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밀랍에 글자를 한 자 한 자 새기는 바람에 목판처럼 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에 같은 자형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해명되게 됐다.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용된 것은 주물사 주조법. 바닷가 고운 모래관(주물사)에 나무에 새긴 글자를 도장찍듯 눌러 오목하게 자국을 만든 다음 양쪽 인판을 합치고 그 공간에 쇠물을 넣어 활자를 만들어 냈다. 요즘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으로 활자의 모양이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오씨는 두가지 방법을 다 시연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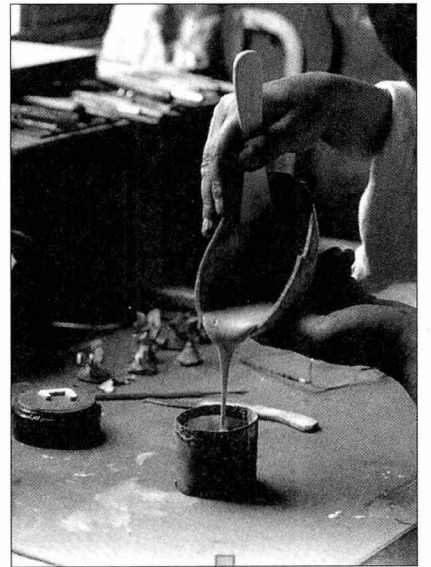
전통한지시연과 구텐베르크 인쇄특별전

인쇄술에 있어 금속활자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이다. 1천년 이상 가는 우리 전통한지는 그 이름다음과 내구성으로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쇄문화 축제에서 전통한지 제조과정 시연이 빠질 수 없다.

전통한지는 닥나무·산 닥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닥밭에서 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고 물에 불려 삶고 두드려서 맑은 물에 씻는다. 이 닥나무를 수조에 담아 체로 거르듯 떠내서 말리면 한겨한겨 아름답고 튼튼한



전통한지 제조과정 시연(왼쪽)과 고인쇄 밀랍주조 시연.



한지가 만들어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렇게 만든 한지에 《직지심경》을 인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고서 및 교과서 특별전도 10월1일부터 한달간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개화기 우리 민족의 전통인쇄술과 서양의 인쇄술이 혼용된 시기의 교과서를 통하여 동서양 인쇄술의 차이를 비교하고, 근대교육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된 교과서는 한국 최초의 교과용 도서, 고서, 개화기 교과서와 잡지, 한글판 종교서적 기타 출판물, 교육자료 등이다.

한편 고인쇄박물관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한독문화교류전도 볼 만하다. 독일 구텐베르

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서》(1454년 인쇄) 등 독일 고인쇄 금속활자본과 고인쇄기기 9종 31점을 선보였다.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42행 성서》, 구텐베르크 활자, 주조틀, 식자기, 활자판 등을 선보였다. 초창기 인쇄물로는 가장 아름다운 책들 중 하나로 꼽히는 그의 성서를 볼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한·독교류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고서 10점과 《직지심경》 등 14종 46점의 시 고인쇄박물관 보유 고서와 인쇄기기를 독일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 마정미 기자